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국민건강 대응방안 파악을 위한 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국민건강 대응방안 관련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

□ 출장기간

○ 2011. 05.16. ~05. 20.(4박 5일)

□ 출장국가

○ 일본 동경

□ 방문기관

○ 내각부, 후생노동성, 동경도청, 동경도 이타바시구보건소

□ 출장자

○ 정진욱 초빙연구위원

□ 수집자료

○ 생활지원 뉴스

○ 피해지역 발달장해자에 대한 대응

○ 동북지방대평야지진과 노재보험

○ 정신건강 지킴이

○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고용조정조성금

○ 동일본대재해에 따른 장애복지서비스의 제공

○ 복지서비스와 자립지원의료 이용에 관하여

Ⅱ 국외출장 일정별 방문기관조사결과

1. 5 16(월)

□ 인천공항 출발

○ 출국

2. 5 17(화)

가. 내각부

1) 면담자

○ 과장 NAMIKI YUTARO, HAMA DAISUKE

2) 조사내용

□ 원전사고의 개요

○ 2011년 3월 11일(금) 14:45 일본 도후쿠 지방 부근 해저(북위: 38.322, 동경: 142.360)에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일본에서 가동 중이던 55기의 발전용 원자로 중 후쿠시마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1~4호기에서 잔열제거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소폭발로 이어졌으며, 상당량의 노심 내 핵연료 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내 핵연료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음

○ 후쿠시마 원전 1호기(3월 12일), 3호기(3월 14일)에서는 냉각 없이 고온 증기에 노출된 연료봉의 피복재가 증기와 산화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소가스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증기와 함께 배출되어 원자로 건물 지붕 밑에 모여서 수소폭발을 유발하였다. 2호기(3월 15일)는 원자로 건물 지붕이 아닌 격납용기에 연결된 압력억제수조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하였고, 4호기(3월 15일)에서는 수조의 물이 증발하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연료봉의 피복재가 산화하여 원자로 건물이 파손되는 수소폭발을 일으켰음

❍ 2011년 3월 18일 이전의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등급을 5등급으로 잠정 추정하였으나, 4월 11일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은 사고등급을 7등급으로 격상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월 18일 후쿠시마 원전 내에서 최고치로 400mSv/h의 방사선을 검출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3월 21일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북서쪽 약 200m지점의 공기를 채취한 결과, 1cc당 요오드-131 5.9mBq, 요오드-132 2.2mBq, 요오드-133 0.04mBq, 세슘-134·137 0.02mBq가 검출되었으며, 후쿠시마현 원유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등 4개 현 시금치에 대해 출하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

❍ 3월 29일에는 제 1원전 2호기 터빈 건물에서 고농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웅덩이 발견하였으며, 원전 부지 내 토양에서 플루토늄이 검출 되었다. 그리고 원자로 냉각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살수와 방수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해수로 유입되어 4월 1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해역인 이바라키현 이바라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까나라에서 4,080 Bq/kg 요오드-131가 검출 되었음.

❍ 또한 원전 2호기 취수구(4.2일) 및 원전 3호기 전력케이블(5.11일)을 통한 오염수 유출로 방사성 물질이 대기뿐 아니라 해류를 통해서도 확산됨이 확인 되었음

❍ 4월 12일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사고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격상하였고, 20일 후쿠시마 원전 20km이내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법적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음

❍ 4월 1일부터 6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으로 유출된 총량은 520톤에 달하고, 방사성 물질 총량은 4700TBq 달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4월 21일에 발표하였음.

❍ 4월 2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우라늄 핵분열로 생성되는 물질인 아메리시움-241 0.033 Bq/Kg, 퀴륨-242, 243, 244 0.2 ~ 4 Bq/Kg, 미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도 검출 되었음

❍ 5월 4일에 여진이나 해일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2호기 트렌치 터널을 콘크리트로 매설 하였고,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연료봉이 완전히 노출 되었으며, 13일 1호기에 슬럼프 현상으로 원자로 용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음

□ 원전 피폭에 따른 피해 자

❍ 원전 피폭자

- 후쿠시마에서는 원전 작업자의 급성 방사선 장해는 없으며, 다리의 피부 장애가 1명이 확인 되었음.

❍ 사고 후 청소 작업에 종사한 자

- 후쿠시마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변 주민

- 후쿠시마 주변 주민의 현재의 피폭 선량은 200mSv 이하이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우유에 대해서는 잠정기준 300(유아 100)Bq/kg을 지키고 있으며, 100Bq/kg 이상의 우유는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일반적으로 IAEA 'Level 7의 방사능 누출 및 범위에서 확률적 영향(발암)의 위험의 증가 및 결정적 영향(신체 장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3. 5월 18일(수)

가. 후생노동성

1) 면담자

❍ OOI MASAKO, HAGIWARA RYUUSUKE

2) 조사내용

□ 농·축·산물의 방사성물질 관리의 기본 방침

❍ 식품안전위원회는 이번의 긴급회의에서 국민의 건강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로부터 제시된 정보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정보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과학적 지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토하였음

❍ 식품안전위원회로서도 식품 중의 방사성물질은 원래 가능한 한 저감화 하는 것이 당연하며, 임산부 혹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시점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실제로 환경 중에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핵종 및 양, 또는 방사성물질의 오염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여러 가지 검토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임

❍ 식품안전위원회로서는 앞으로도 이번 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방사성물질에 관한 식품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시 정리 요약할 계획임

□ 방사성물질의 개요

❍ 후생노동성이 잠정규제치의 대상으로 정한 핵종은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 우라늄, 플루토늄 및 초우라늄원소의 알파 핵종임다.

❍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 사고 시에 원자로 시설 주위환경에 방출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방사성물질로서는 기체상의 크립톤, 제논 등의 희귀 가스 및 휘발성의 방사성물질인 요오드 등이 있음

❍ 이번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해 어떤 핵종이 어느 정도 환경 중에 방출되었는지에 대한 Data도 없고 따라서 식품에서 어떤 핵종이 어느 정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임

❍ 지금까지의 원자력발전소 재해시의 대응 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고에서 긴급히 검토해야 할 방사성물질로서 방사성 요오드(I-131)와 방사성 세슘(Cs-134 및 Cs-137)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선 방사성 요오드(I-131)와 방사성 세슘(Cs-134 및 Cs-137)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정리 요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2> 일본의 방사성물질 잠정 규제치(2011년 3월 17일 이후)

방사성물질	식품	잠정규제치 (Bq/kg)
방사성 요오드 (혼합핵종의 대표핵종, 131I)	음료수, 우유, 유제품[1)]	300
	야채류(뿌리류, 줄기류 제외) 어패류(4월 5일 이후)	2,000
방사성 세슘 (134Cs, 137Cs)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0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500
우라늄 (Uranium, U)	유아용 식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100
플루토늄(Plutonium, Pu) 및 초우라늄원소의 알파핵종 (238Pu, 239Pu, 240Pu, 242Pu, 241Am, 242Cm, 243Cm, 244Cm 방사능농도의 합계)	유아용 식품, 음료수, 우유, 유제품	1
	야채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기타	10

주 : 100 Bq/kg를 초과하는 식품은 유아용 조제분유 및 직접 음용하는 젖이나 우유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 방사성물질에 의한 신선식품의 오염

❍ 원전이나 핵실험으로 발생한 방사성물질은 대기 환경으로 방출된 후 낙진 또는 비를 통해 직접 채소 및 농·임산물이 오염 되거나, 또는 토양이나 해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염됨.

❍ 전국 대상 신선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후쿠시만 원전 30 ㎞ 지점 우유 잠정기준치의 5배, 남서쪽 이바라키현 시금치 잠정기준치의 7.5배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으며 검출량은 1년간 매일 섭취하더라도 CT촬영 1회 정도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임

❍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농가의 피해보상을 전제로 농산물 출하제한을 검토하고, 검사지역 확대 및 출하된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시 잠정기준치 이상의 식품은 출하중지 조치: 세슘은 우유 및 유제품에서 100 Bq/㎏, 채소, 곡류, 육류 및 계란에서 500 Bq/㎏, 옥소는 음료수에서 300 Bq/㎏, 채소는 2,000 Bq/㎏

❍ 식품 중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한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후쿠시마현의 긴급시 모니터링 검사결과 등으로 분류하여 어류, 채소류, 원유, 소고기 등의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 검출현황

❍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주변의 20개 도도부현(그림 13)은 2011년 3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4611개의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그 중 318개 식품에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함.

❍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으로 1910개의 시료 중 222개 시료에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11.6%의 초과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인접지역인 이바라키현으로 726개의 시료 중 59개 시료에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8.1%의 초과율을 나타났음

❍ 식품종류별 현황은 녹차 생엽이 102개 시료 중 20개 시료에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19.6%의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야채류로 3,319개 시료에서 245개가 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되어 7.4%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은 수산물로 466개 시료 중 26개 시료에서 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되어 5.6%의 초과율을 나타냈으며, 유, 유제품에서 4.1%의 초과율을 나타냈고, 란, 육류에서에서는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시료는 없었음.

❍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의 잠정규제치의 초과 경향을 보면, 사고발생(3월 11일) 10일후인 3월 20일경 까지는 방사성요오드의 잠정규제치의 초과가 세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후 4월 초까지는 요오드와 세슘이 비슷한 비율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였다. 4월초 이후로는 요오드보다 세슘의 잠정규제치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음

❍ 후쿠시마 원자력 제 1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2011년 3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4,611개의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측정한 결과가 <표 1>에 지역별 식품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음

<표 3> 일본의 식품 종류별 방사성물질 검출현황 및 잠정규제치 초과시료 수 (2011.03.12.~06.07.)

산지	식품유형	시료수	방사성물질 검출 시료수	잠정 규제치 초과 시료수	잠정 규제치 초과시료비율(%)
홋카이도	수산물	11	6	0	0/11
아오모리현	유, 유제품	9	0	0	0/11
	야채류	1	1	0	
	수산물	1	0	0	
이와테현	야채류	4	0	0	0/4
미야기현	유, 유제품	15	7	0	0/92
	야채류	65	44	0	
	수산물	11	4	0	
	차(생엽)	1	1	0	
야마가타현	유, 유제품	4	1	0	0/49
	란, 육류	3	0	0	
	야채류	42	9	0	
후쿠시마현	유, 유제품	254	135	15	222/1910 (11.6)
	란, 육류	138	77	0	
	야채류	1,399	778	185	
	수산물	118	99	21	
	차(생엽)	1	1	1	
이바라키현	유, 유제품	55	37	5	59/726 (8.1)
	란, 육류	9	0	0	
	야채류	408	281	37	
	수산물, 가공품	212	167	5	
	차(생엽)	32	32	12	
	차(음용)	10	10	0	
토치키현	유, 유제품	30	5	0	12/218 (5.5)
	란, 육류	5	0	0	
	야채류	172	105	10	
	수산물	6	6	0	
	차(생엽)	5	5	2	
군마현	유, 유제품	37	6	0	4/325 (0.3)
	란, 육류	7	0	0	
	야채류	272	131	3	
	수산물	7	0	0	
	기타(생엽)	2	2	1	
사이타마현	유, 유제품	19	2	0	0/199
	야채류	162	72	0	
	수산물	2	20	0	
	차(생엽)	3	3	0	
	차(음용)	13	10	0	
소 계		3,545	2,057	297	

<계속 > 일본의 식품 종류별 방사성물질 검출현황 및 잠정규제치 초과시료 수

산 지	식품카테고리	시료수	방사성물질 검출 시료수	잠정 규제치 초과 시료수	잠정 규제치 초과시료비율(%)
치바현	유, 유제품	16	9	0	9/354 (2.5)
	란, 육류	4	0	0	
	야채류	259	109	9	
	수산물	63	38	0	
	차(생엽)	9	9	6	
	차(음용)	3	3	0	
토오쿄오도	유, 유제품	3	2	0	1/63 (1.6)
	야채류	49	31	1	
	수산물	4	3	0	
	차(생엽)	1	1	0	
	차(음용)	6	4	0	
카나카와현	유, 유제품	26	8	0	5/145 (3.4)
	란, 육류	4	0	0	
	야채류	73	27	0	
	수산물	26	12	0	
	차(생엽)	15	14	4	
	차(음용)	1	1	1	
니이가타현	유, 유제품	19	0	0	0/369
	란, 육류	2	0	0	
	야채류	343	0	0	
	차(생엽)	4	0	0	
	차(음용)	1	1	0	
야마나시현	차(생엽)	5	5	0	0/5
나가노현	유, 유제품	3	0	0	0/54
	야채류	47	8	0	
	수산물	2	0	0	
	차(생엽)	2	0	0	
기후현	야채류	1	0	0	0/1
시즈오카현	유, 유제품	2	2	0	0/55
	야채류	3	2	0	
	수산물	2	2	0	
	차(생엽)	21	20	0	
	차(음용)	19	19	0	
	차(製茶)	8	8	0	
쿄오토후	야채류	3	3	0	0/4
	차(생엽)	1	0	0	
효고현	야채류	14	0	0	0/14
애히메현	야채류	2	0	0	0/2
소 계		1,066	341	21	
총 계		4,611	2,398	318	318/4611(6.9)

< 계속> 일본의 식품종류별 방사성물질 잠정규제치 초과 시료수

지역	유, 유제품		란, 육류		야채류		수산물		차 생엽		차 음용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측정 시료 수
홋카이도							11					
아오모리	9				1		1					
이와테					4							
미야기	15				65		11		1			
야마가타	4		3		42							
후쿠시마	254	15	138		1,399	185	118	21	1	1		
이바라키	55	5	9		408	37	212	5	32	12	10	
토치키	30		5		172	10	6		5	2		
군마	37		7		272	3	7		2	1		
사이타마	19				162		2		3		13	
치바	16		4		259	9	63		9		3	
토오쿄	3				49	1	4		1		6	
카나카와	26		4		73		26		15	4	1	1
니이가타	19		2		343				4		1	
야마나시									5			
나가노	3				47		2		2			
기후					1							
시즈오카	2				3		3		21		27	
쿄오토					3				1			
효고					14							
애희메					2							
총계	492	20	172	0	3,319	245	466	26	102	20	61	1

4. 5월 19일(목)

가. 동경도청 보건복지국

1) 면담자

❍ 주임 NAKAJIMA KUMIKO, IBE AKIHIRO

2) 조사내용

□ 도쿄 대기 중 방사선 수치

❍ 일본의 건강 안전 연구센터는 환경 중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장소는 도쿄도 신주구구 하쿠닌초임

❍ 대기 방사선의 양(감마선)을 모니터링 포스트라는 거치형 장비가 연중 24시간 연속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 단위는 μGy/h (마이크로 그레이/시간)이며, 그레이는 방사선이 물질에 맞았을 때의 에너지양을 의미함

❍일본 건강안전연구센터는 2011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쿄도내 100개소의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하였으며, 토양의 지표면에서 높이 5cm지점과 1m지점을 측정하였음

❍ 측정장비는 섬광식 서베이 미터히타치 아로카 메디컬 TCS166을 사용하였으며, 5회 반복 측정에 의한 평균치이고, 측정위치는 원칙적으로 구시 정촌의 원하는 위치이며, 도서를 제외한 모든 구시 정촌 1개 이상의 위치에서 측정을 실시하였음

<표 1> 도쿄도내 대기중 방사선 수치

측정일	선율량, μGy/h (microgray per hour)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3월11일	0.0376	0.0308	0.0341
3월15일	0.809	0.0318	0.109
3월22일	0.166	0.123	0.137
3월26일	0.13	0.114	0.122
3월29일	0.114	0.101	0.107
4월 5일	0.094	0.082	0.0884
4월12일	0.0844	0.0732	0.0777
4월19일	0.0874	0.0693	0.0754
4월26일	0.0732	0.0653	0.0694
5월 3일	0.0762	0.0638	0.0683
5월10일	0.0709	0.0614	0.066
5월17일	0.0722	0.0598	0.0637
5월24일	0.0679	0.0569	0.0525
5월31일	0.0635	0.0558	0.005
6월7일	0.0642	0.052	0.0049
6월14일	0.0631	0.0546	0.0049
6월21일	0.0624	0.0539	0.0049
6월26일	0.103	0.0549	0.0049

자료: 일본 건강 안전 연구센터, 2011

❍ 측정 결과, 지상 1m 측정은 0.03 ~ 0.20μGy/h, 지상 5cm 측정은 0.02 ~ 0.19μGy/h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종래부터 측정한 수치(0.04~0.21μGy/h)와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 밝히고 있음

❍ 지상 1m 측정 및 지상 5cm의 측정은 지상 5cm 측정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도내 전체의 경향으로 구 동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측정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고, 측정 결과의 최대값은 0.2μGy/h이며, 1년간 방사선양을 자연방사선량 등을 제외하고 추정하면 0.79mSv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4. 5월 20일(금)

가. 동경 이타바시구보건소

1) 면담자

❍ 소장 HIRADA MIEKO, HIOKI TOMOKO,

2) 조사내용

□ 동경도 긴급 대책 방침

❍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즉시 대처

- 많은 사람이나 기업이 모이는 수도 도쿄의 힘을 총동원하여도 현장 감각과 기술, 재정 능력도 구사하고, 피해 지역의 부흥과 도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에 신속하게 대응

- 대책

· 재해 지역 산업 경제의 본격 회복을 위한 지원

· 기업과 가정의 전력 피크 컷 대책

·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

❍ 향후 사태에 대비해 미리 수단을 강구해 둠

- 향후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취할 수있는 수단을 신속히 강구해 두는 것으로, 도쿄를 정체시키지 않고 일본의 부흥을 강력하게 강구함

- 대책

·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전력 부족에서 약자를 보호 노력

· 귀가 곤란 자 지원의 새로운 전개

· 해일 고조 대책이나 액상화 대책

❍ 미래 지향 본격 대책에 대한 준비를 서두름

- 일본의 두뇌 부 심장부인 수도 도쿄 고급 방재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우선 대지진의 교훈을 전문가도 섞어 철저 분석·검증하고,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행에 옮김

- 대책

· 목조 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 촉진 등에 향한 노력

· 지진시 긴급 수송 도로의 기능 확보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 전문가의 지식도 근거 고급 방재 도시 실현 위한 조사 검토 등

❍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도쿄에서 즉시 해야 할 것을 긴급 대책으로 챙김

❍ 긴급 대책의 노력을 통해 이번 대지진의 현실감 있는 교훈도 감안하여 조기에 대응 방침을 지시하면서 새로운 비전 " 2020 년 도쿄 (가칭) "으로 이어 가기

□ 동경긴급 대책 요지

❍ 수도 도쿄의 종합 력을 활용한 피해자 피해 지역 지원

❍ 전력 위기 돌파를위한 도쿄의 긴급 대책

❍ 방사능의 불안에서 도민과 사업자를 보호

❍ 대지진의 영향을 받은 산업 재생

❍ 도쿄 고급 방재 도시로 변모

- 이번 대지진의 전문적인 검증에 근거 방재대책의 운영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응 방침을 올해 안에 수립 책정

- 도시 기능의 취성을 고려한 고층화에 새로운 정비 등 즉시 얻을 수 있는 대책의 가속화

- 도쿄의 도시 구조의 본질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본격 대책에 즉시 착수

□ **동경긴급 대책에 따른 예산 규모 등**

❍ 긴급 대책은 95 사항, 사업 규모는 약 3,710 억 원

❍ 긴급 예산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2 회 도쿄 도의회 정례회에 추경 예산 (안)을 제안 예정 (보정 규모는 1,374 억 엔)